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

Developing a Basic Framework for the Korean National Collection Policy

장혜란(Hye-Rhan Chang)**, 홍현진(Hyun-Jin Hong)***
노영희(Younghee Noh)****, 오의경(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4.2 협동연계장서 구축 |
| 2.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 4.3 장서평가 |
| 3.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수집 현황 | 4.4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
| 4. 국가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 | 5. 결론 및 제언 |
| 4.1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 |

초 록

정보자원의 지속적 증가와 다양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접근과 활용 등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장서개발 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장서 구축을 위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기본모형은 크게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협동연계장서 구축, 장서 평가,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등 네 가지의 서브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형별 세부 내용과 추진방안이 제시되었다.

ABSTRACT

A more sophisticated library collection policy is required due to the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Both traditional resources and diversified networked information resources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hould construct a systematic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fulfill its mi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asic framework that is intended to improve the coverage of national collection. Examining previous studies and the nationa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a model consisting of four sub-models has been proposed. It includes hybrid collection, cooperative linking collection, collection evaluation, and a collection policy statement. Details of the sub-models and strategies are described.

키워드: 국가장서, 장서개발정책, 장서개발모형, 국가도서관

National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Collection Policy Framework,
National Library of Korea

* 본 연구는 2009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rhan@smu.ac.kr)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jhong@chonnam.ac.kr)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irs4u@kku.ac.kr)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교수(ohspace@kku.ac.kr)

논문접수일자: 200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09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93-215, 2009. [DOI:10.4275/KSLIS.2009.43.4.193]

1. 서론

도서관 정보환경의 변화, 정보자료의 다양화 및 전자정보원의 급증 등으로 각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재정비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검토,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표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장서개발계획으로부터 선진국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정책에 입각한 장서구축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국가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도서관 구현을 위한 온오프라인 자료, 국외 한국인 저작 및 한국의 사회·문화·역사 등 한국 관련 자료, 회색문헌, 장애인자료 등의 포괄적 장서구축전략을 고찰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종합하며 국외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서들을 검토하여 국가장서 수집 범위, 수집 방법, 수집 규정, 평가 방법 등 장서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 국의 국가도서관 및 관련 웹사이트를 직접 탐색하여 최근의 변화와 발전방향을 조사하였다.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국외의 장서개발 정책 사례 등을 기반으로 제시한 장서개발 기

본 모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확충 세부계획 및 지침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장차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의 기록문화 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 지식 집산처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서수집 업무를 재정비하고 중장기 장서확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국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¹⁾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서관의 목적은 장서개발정책의 방향, 틀, 범위를 결정한다.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해 보면,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는 목적 등을 포함하는 서문 또는 개요, 주제별 장서개발정책, 매체별 장서개발정책, 지역별 국외자료 개발정책, 장서개발수준 및 범위, 중장기장서개발계획, 전자자원 개발정책, 기타 등이며 그 중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서정책 개요

이 부분에서는 국가도서관의 목적, 목적 달

1) 미국 의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페이지. <<http://www.loc.gov/acq/devpol>>. 영국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페이지. <<http://www.bl.uk/aboutus/stratpolprog/coldevpol/index.html>>. 호주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페이지. <<http://www.nla.gov.au/policy/cdp/>>. 캐나다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 페이지. <<http://collectionscanada.ca/collection/024/index-e.html>>.

성을 위해 국가도서관이 추구해야 할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서개발의 범위, 장서의 보존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중장기장서개발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목적은 캐나다의 문화와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전송시키며, 국외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고 진술하고, 장서수집원칙, 장서의 핵심개념, 발전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주제/매체별 장서개발정책

국외 국가도서관의 경우 주제별 및 매체별로 장서개발정책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상세하게 학문 주제별 46가지와 매체별 16 가지로 구분하여, 장서개발 범위, 예상 장서 규모, 강점, 특성, 취약점과 수집제외 자료, 추구하는 장서 수준 등을 기술하고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은, 주제를 사회과학, 인문과학, 예술, 과학 등 계열별로 구분하고, 매체는 구전역사와 민속기록물, 사진, 지도, 음악, 특수중점자료인 무용 등으로 구분하여, 장서개발 목적, 정의 및 범주, 장서개발 방법, 접근 방법,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3) 지역별 국외자료 개발정책

전 세계의 자료를 모두 수집하는 목적을 가진 대규모 국가도서관에서는 국외자료의 장서개발 방향 및 범위, 수집전략 등을 지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전 세계의 지역 연구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은 영국 및 아일랜드, 중동 및 북아프리카, 네덜란드, 독일, 그리스, 인도, 이태리, 스칸디나비아, 슬라브 및

동유럽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호주 국립도서관은, 인접지역과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국외장서 일반, 전자정보원,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수주제, 정부 및 국제기구 간행물, 신문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장서개발 목적, 범주, 언어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4) 장서 수준 및 범위

대부분의 국가도서관들은 장서개발 수준이나 범위를 장서개발정책 서문이나, 주제별·매체별·국외지역별 장서개발정책 기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장서 수준을 각 주제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연구도서관그룹(Research Libraries Group: RLG)이 개발한 컨스펙터를 적용하고 있다. RLG 컨스펙터는 연구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기술하는데 적합하며, Level 0부터 Level 5까지 각각 Out of Scope, Minimal, Basic Informational, Study or Instructional Support, Research, Comprehensive 수준을 나타낸다. 호주 국립도서관도 장서 평가를 위해 컨스펙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호주 컨스펙터는 Level 0부터 Level 5까지 각각 Out of Scope, Minimal, Basic, Intermediate, Research, Comprehensive 수준을 나타낸다.

5) 장서개발 전략

균형 있는 장서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장서개발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 국립도서관에서는 2005년 'Key Directions, 2005-2010'을 제시하였는데, 하나의 완벽한 LAC 장서구축, 디지털장서구축계획, 원주민 관련 자료, 다문화 자

료, 국가장서구축 등에 대한 다섯 가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6)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디지털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보존과 관련된 장서개발정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주제별 매체별 장서정책의 Supplementary Guidelines에서 'Electronic Resources' 제목 하에 디지털자료의 정의 및 수집범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도 'Web Collections'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국립도서관은 2006년 6월 독일도서관법이 통과됨에 따라 non-physical media(즉, 온라인출판물) 수집 업무가 부여되었으며, 납본규정과 장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3. 국립중앙도서관 장서수집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구입, 교환, 기증, 자체생산 등의 방식으로 장서를 수집하고 있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수집 내역별 장서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납본에 의한 수집이 5,403,444건으로 전체의 74.10%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기증에 의한 수집이 774,404건, 구입에 의한 수집이 558,722건, 교환에 의한 수집이 403,439건, 자체생산이 152,228건의 순이다.

2008년도의 유형별 자료 수집 방법과 수량은 <표 2>와 같다.

납본 대상은 국내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로, 수집 내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개별 납본과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행 납본의 병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통계에 의하면, 2008년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납본된 신간 출판물(2008년 출판물)은 모두 43,099종으로 전년도 대

<표 1> 수집 내역별 장서현황

(단위: 책, 부, 점, 릴)

구분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자체생산	계
장서량	5,403,444	558,722	403,439	774,404	152,228	7,292,237

※ 출처: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소개.

<표 2> 2008년 자료유형별 장서 수집 내역

(단위: 책, 부, 점, 릴)

구분	납본	구입	교환	수증	자체생산	계
단행본도서	296,484	21,663	3,910	16,459	1,255	339,771
단행본비도서	52,256	5,010	1,888	2,131	1,926	63,211
연속간행물도서	266,684	11,710	4,563	1,718	181	284,856
연속간행물비도서	4,108	889	318	-	568	5,883
계	619,532	39,272	10,679	20,308	3,930	693,721

※ 출처: 2008 국립중앙도서관 연보(pp.261-262에서 재편).

비 4.9%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http://www.kpa21.or.kr/bbs/board.php?bo_table=d_total). 또한 납본용역 사업에 의하여 납본된 자료의 총 수는 113,800 책(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납본법 시행 이전 국내 발행 자료 중 미소장 희귀자료, 국외 발간 한국관련 자료, 북한서, 일본서, 중국서 및 서양서 등 다양한 언어의 자료는 구입에 의하여 수집되며, '책다모아' 홈페이지(<http://www.nl.go.kr/sun/index.php>)를 운영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기증받아 이들 중 미소장 자료를 장서로 편입한다.

또한 국외 도서관 및 국제기구 등과 교환 기탁을 통해 국외의 출판정보,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각종 통계, 국외 발행 한국관련 자료, 국제기구간행물 등을 수집하며, 국내외 소재 한국 고문헌 조사 영인을 통한 자체 생산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 국내 영인사업의 경우 규장각 소장 2,983종 3,246책이 마이크로필름 225롤로 수집되었고, 2010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국외소재 자료의 영인사업은 Harvard대학교 연칭도서관 소장 한국고서 297종 347책이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의 84종 313책의 자료가 디지털파일 48,592면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도 국외소재 한국 관련 근현대사 자료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영인 수집하고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한국 관련 자료는 현재 1,030,000면을 수집하였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에 의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2013년까지 총 장서량 1,100만을 넘어서 OECD국가 중 8위 수준으로 성장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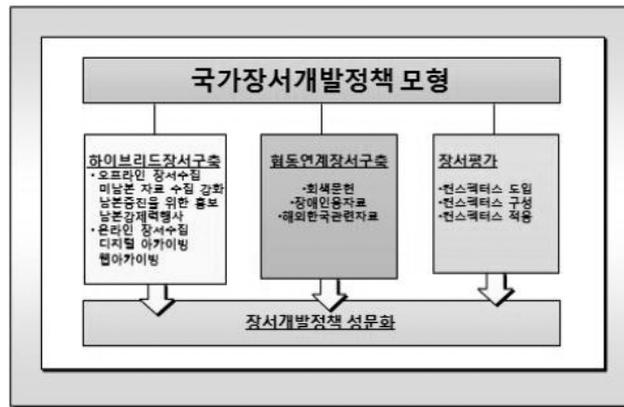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국가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

국가장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으로서, 인쇄자료, 원문자료, 전자출판물, 웹 정보자원 등의 균형 있는 수집 방안을 제안하는 '하이브리드장서구축'모형, 정보소외계층(장애인)을 비롯하여 이용자나 발행처가 한정적인 특수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으로 '협동연계장서구축'모형, 국가장서의 균형있는 발전과 보존 그리고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서평가'모형,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성문화'를 제안하였다(그림 1 참조).

4.1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오프라인 정보자료는 물론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장서를 지향하는 국가도서관에서는 전통적 매체자료와 더불어 전자출판물에 대한 장서수집 정책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의 장서개발정책에 추가하여, 인터넷 디지털 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MINERVA, 영국의 CEDARS, 호주의 PANDORA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2004년부터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웹사이트, 웹문서 등의 디지털 자원을 수집하고 있다.



〈그림 1〉 국가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1) 오프라인 장서수집

오프라인 장서의 경우, 현행 수집 방법인 납본(자료제출), 구입, 기증, 국제교환 그리고 기타 국외 소재 우리나라 고전 자료의 영인 수집 보존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주제별, 유형별, 매체별 수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법정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망라적 수집을 전제로 하되, 집중적으로 수집해야할 주제 및 유형,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의 근간이 되는 납본업무에 대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미납본 자료의 수집 강화, 납본 증진을 위한 홍보, 납본 강제력 행사로, 이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계획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 온라인 장서수집

국외 국립도서관에서는 1996년부터 온라인 디지털자원을 수집·보존하고, 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디지털자원의 범위가 방대하여 자국에 적합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선정지침을 마련하여 그 지침을 충족시키는 디지털자원만을 수집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수집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 원칙은 온라인 전자출판물 수집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생산 유통된 전자출판물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수집된 자원은 양적으로 적지만, 수집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정보자원은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사진과 동영상, 소리, 그림, 소프트웨어, 웹 페이지를 포함한다. 이 정보자원의 대부분은 영속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며,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생산,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자원의 보존을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디지털화한 자료를 모아놓는 보고나 창고가 아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아카이브는 보관을 목적으로 구축되었지만,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아카이브는 자료의 적극적 활용뿐만 아니라 자료가 합성되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내

기도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우리나라의 특성 있는 문화원형들을 사운드(음성), 텍스트(문자), 이미지(정지화상), 동영상의 매체별 주제별 요소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국가지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웹 자원은 이용은 편리하지만 잦은 변화로 인하여 가치 있는 정보가 삭제, 변경되어 수집이나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화자원으로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 장서개발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록유산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웹 자원을 수집, 보존하는 노력은 1990년대부터, 주로 국가도서관들의 주도하에 시작되었다. 1994년 캐나다의 EPPP, 이후 호주의 PANDORA, 미국의 IA, 스웨덴의 Kultturaw3 등을 필두로 웹 사이트 아카이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웹 아카이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와 민간에서 진행된 정보트러스트이다. 국가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은 가치 있는 인터넷 자원을 수집, 보관하기 위해 OASIS를 2001년부터 시작하고 2006년에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정보트러스트는 개인과 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생산된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웹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기술을 가진 기술 인력과 함께 그들의 공동 활동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리더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료의 경우, 낱본 수집이 확립되지 않아, 디지털 자료에 대한 총량 조사나 수집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된 도서관법에 의하여 디지털 자료의 수집이, 특히 2009년 5월 개관한 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디지털 자료의 총량은, 전자도서, 전자잡지, 데이터베이스, 웹정보자료(홈페이지, 웹사이트), 음악파일(MP3 등), 동영상자료, 이미지, 각종 전자문서 등을 대상으로 검색엔진인 GOOGLE과 NAVER를 통해 현재 92억 6천만 건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연간 수집수량을 현재의 10% 수준인 9억 2천만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곽승진 등 2008).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추정 건수를 모두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예산의 확보와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4.2 협동연계장서 구축

국립중앙도서관은 망라적 수집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하여 소장 위주의 장서를 성실히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장서의 범위는 소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접근이나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회색문헌, 장애인 대체자료등과 같은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출처가 다양하고 배포 방식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미 국내 타 기관에 산발적으로 분산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용자가 한정적인 경우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소장하는 것보다 타 기관과의 협동을 통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장서개발의 중복투자 방지와 완전한 서지통정에 효율적이다. 소장(possesion)뿐만 아니라 접근(access)이나 연계(link)로

장서 개념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수집정책에서도 협동을 통한 서지정보DB의 구축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원문 공유가 실현되는 전략이 채택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회색문헌, 장애인자료, 국외 한국관련 자료 등 접근이나 연계로 개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서를 대상으로, 협동연계장서 구축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전자도서관사업 등을 통하여 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상호대차 전문 제공에 대한 협력 사례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기술적인 인프라는 조성되어있다고 보며, 다만 참여기관의 행정적 특성과 위상을 고려한 역할 분담과 협력의지 그리고 협의를 통한 주관기관의 결정이 중요하다. '도서관법'에서 문화기관 및 도서관 관중 간의 협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4.2.1 회색문헌의 협동연계장서

1) 학위논문

국내 대표적인 학위논문 수집기관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KERIS 등이 있다.

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는 국내 191개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737,156건의 학위논문의 검색과 원문 서비스 또는 원문연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회도서관은 2009년 4월 30일 현재 1,051,559책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약 50,000책이 넘는 학위논문이 꾸준히 수집

되고 있다. 또한 1945년 이후 간행된 석박사 학위논문 1,245,325건에 대한 목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위의 두 개 기관과 협동하여 링크와 서지정보의 공유를 통한 DB를 구축하여 보다 완전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의 dCollection의 확대 보급으로, 인쇄본 형태의 기증 비중이 점차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KERIS, 국회도서관 그리고 대학도서관들과의 서지정보공유와 링크 컬렉션으로의 확대는 학위논문의 서지통정과 이용자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정부간행물

현재 정부간행물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기관이 없으며 정부간행물을 수집하는 곳도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간행물 협동연계수집에 대한 총괄 통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담당해야하며, 현재의 정부간행물 수집기관인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과의 역할 분담과 서지정보의 공유와 링크를 통한 장서의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 중앙부처의 간행물을, 국회도서관은 연구기관 및 공공단체의 간행물을, 국가기록원은 정부기관의 기록물을 분담하여 수집하며,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을, 국회도서관은 기증을, 국가기록원은 납본을 주요 수집방법으로 유지한다. 각각의 기관이 수집한 간행물의 서지정보는 종합목록DB로 구축되며, 상호간 공동으로 활용 또는 링크시킴으로서, 협동 장서를 구축하며, 장기적으로는 협력 수집 기관을 확대시켜서 완전한 정부간행물의 컬렉션을 구

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보고서

회색문헌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연구보고서 또한 국가장서로서 수집되어야 할 자료이다. 우선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수집하는 KISTI, SERI, KOSEF 등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종합목록DB 구축과 링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지속적으로 협력기관을 확대 편입시켜, 국가 규모의 연구보고서 컬렉션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각 기관 소장 자료의 주제와 유형에 따라 협력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협동으로 유지되는 서지정보의 통제, 기관별 주제의 할당, 원활한 링크 등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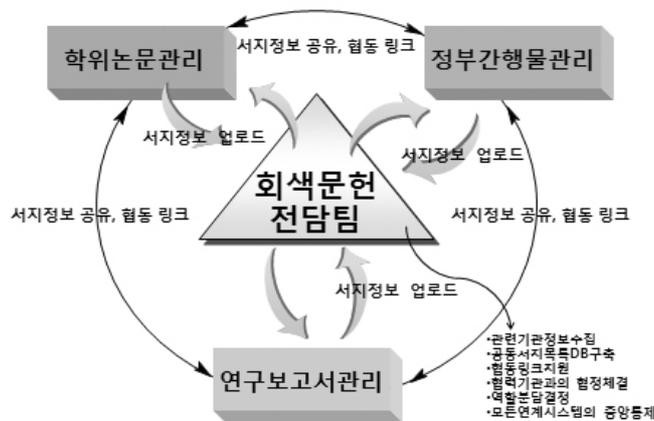
회색문헌 유형별 협동연계장서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략은, 납본과 기증 등 기존 수집 방법의 개선 및 강화를 주도하고, SIGLE, 영국 국립도서관, NTIS 등 국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회색문헌 DB 구축 및 표준화를 전담할 담당부서의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남영준

2008; 신은자 1999). 회색문헌 협력 모델의 개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4.2.2 장애인용 협동연계장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가 2007년에 설립된 이래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정책, 장애인을 위한 점자·녹음·확대·수화·전자자료 등의 제작 및 배포,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도서관간의 협력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장애인 누리터를 개설하여, 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마련해주고,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의 수는 극히 부족하다.

장애인용 장서 수집에 가장 주력해야 하는 분야는 정보획득에 큰 지장을 주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장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장서의



<그림 2> 회색문헌 협동연계장서 구축

수집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장애인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전략이 제안된 바 있다(윤희운 2008).

‘도서관종합발전종합계획 2009~2013’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에서는 장서수집과 관련하여 대체자료 제작 보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동 청소년 독서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 학생 연구자 전문직업인을 위한 학술콘텐츠 개발, 성인 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제시하였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장애인 자료는 일반장서와는 달리 장애를 가진 일부 이용자에 한정되어 있으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도서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 이용 및 접근에 차별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장서 수집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는 서비스 기준 및 지침에서 장애별 대체자료의 유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용 자료는 대체자료로 변환되어야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으나, 형태가 다양하고 자료제작 인건비와 제작도구비용까지 추가되므로, 개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기 어렵다. 협동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첫째는 대체자료의 수집과 제작이며, 두 번째는 서지DB의 공동 구축과 공유, 링크, 상호대차이다. 협력의 구심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되어야 하고, 점자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이 전국 협력망의 노드가 되어 역할을 분담해 나가는 형식으로 모

형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협력기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현재 수집업무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즉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점자교과서), 부산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녹음도서),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점자학습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점자학습물, 전문서적),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녹음도서, 점자어학간행물),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녹음도서, 점자어학간행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화면해설, 녹음도서), 한국점자도서관(테이지도서, 점자도서, 점자도서관종합목록 발행), LG상남도서관 책읽어주는도서관(테이지도서 등), 한국농아인협회(데프코리아), 한국수화방송국, 한국농아TV,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농아인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등이다.

위에 열거된 다수의 기관에서 대체자료를 제작하고 있지만, 대체자료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양의 대체자료를 제작, 소장하는 도서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의 경우, 연간 점자도서 3,000종, Daisy 도서 12,000종을 제작하며, 2008년 현재, 21,631종의 점자도서와 950종 1,900권의 녹음도서와 카세트테이프를 소장하고 있으며, 점자도서관 종합목록도 제작하고 있다.

4.2.3 국외 한국관련 협동연계장서

국가도서관은 국외에서 발간된 자국에 관한 자료와 국외에 소장되어 있는 자국관련 자료를

수집할 책무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한국학 관련 국외자료 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는 '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19조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에서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에 두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관련 국외 자료의 조사 및 수집,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한국관련 기록자료 수집, 국외 소재 한국관련 연구기관·개인 소장 자료 조사 및 수집, 대한민국 영토관련 자료 조사 및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관련 자료 수집현황은 양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국외소재 한국 근현대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가 기록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고 국외발행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한국학 관련 연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완벽한 자료수집 방안 및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기록문화유산의 보존, 한국학의 세계화, 한국학 관련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한국관련 자료의 체계적 탐색, 한국학 관련 국외 소장기관과의 협력, 한국학전문가 파견 등을 통한 한국 관련 자료의 적극적 수집과 동시에 한국학 관련 국내 유관기관을 통한 종합서지목록 DB와 연계장서구축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제는 한국학관련 자료소장기관에 대한 정보와 그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학관련 자료의 양과 질을 조사하며 주제별, 매체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외기관과의 연도별 협력체결 전략을 세우고 나라 수와 기관 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 Smithsonian Institute, Harvard 대학교 등 한국관련 장서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물론,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의 대학 및 연구소 장서를 조사하여 미소장 자료에 대해서는 영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 전략에서 기록물의 포함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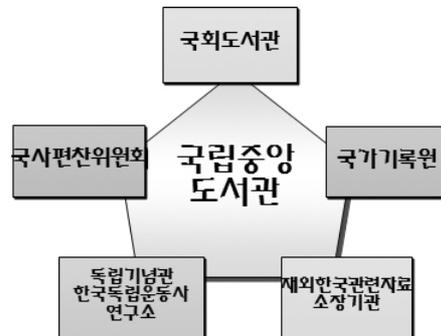
국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조사 및 구입활동이 서지조사나 주요 도서관의 한국관련 장서목록 조사, 그리고 전문출판사 및 출판정보지, 온오프라인 대형서적상의 목록조사 만으로는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학 전문가를 국외에 파견하여 자료조사 및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외소재 문화원 및 재외 문화홍보관 등을 통하여 수집활동이 지원될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세계 각국의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관련 자료는 물론 지역자료 수집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원의 활용은 예산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높을 것이다. 현재 재외문화원은 9개국 12개 처에 있으며, 재외 문화홍보관은 22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있다.

일반적으로 국외 소재 한국관련 자료의 수집은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내 여러 기관에서 국외소재 한국관련 자료 수집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11개 기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혜경 2007). 주요 기관의 대략적인 수집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이러한 기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중복수집을 방지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림 3>과

〈표 3〉 한국관련 국외자료 수집기관 및 수집현황

기관명	수집량	대상 국가 및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개 문서군 • 매년 약 20만면 수집 • 한국고전자료 4,000점 영인 수집 • 귀중자료 5,000책 영인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NARA • 중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국회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책, M/F 74롤, 마이크로피시 1,014 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일본, 중국
국사편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97,633면/3,231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주: NARA, 캐나다 국립아카이브즈 • 일본: 국회도서관, 도쿄대학교, 국문학 자료관, 궁내청서릉부, 후레이이관 신아이쥬쿠, 복각자료 • 중국: 중국북경시당안관, 중국북경국가도서관, 중국국가도서관 • 러시아 및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사회연구소, 타쉬켄트 문서연구소, 우즈베키스탄 국립중앙아카이브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60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NARA • 중국: 대련대학 • 일본: 홋카이도 대학, 도쿄대학, 카무수인대학 등
국가기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 3,774롤 • 문서 1,343,931권 • 도면 1,238,306면 • 카드(인사기록카드, 병적카드 등) 5,290,190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국방성문서연구소 • 중국: 제2 역사당안관, 강소성당안관, 남경시당안관, 연변시당안관 • 일본: 외교 사료관 • 미국, 영국, 몽골, 베트남 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적 11,963점 • 문건 29,622점 • 수기 88점 • 서화 505점 • 사진 13,691점 • 무기 179점 • 유품 978점 • 위탁 2,062점 • 복제 10,518점 • 기타 11,48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국, 일본, 북한 등



〈그림 3〉 국외 한국관련 협동연계장서 구축

같은 협력모형을 통해 종합목록 DB를 구축하고 포괄적으로 한국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학관련 자료들은 기존의 도서관분류체계와는 다르므로 별도의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즉 국제표준기록물기술(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분류체계를 따라 출처 존중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 계층 통제 원칙에 근거하여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현재에도 표준적인 분류체계와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기관들 간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서지DB,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는 원문DB를 구축하고, 또한 한국관련 자료 소장기관 DB도 별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 장서평가

4.3.1 컨스펙터스의 도입

장서평가는 도서관 임무를 완수하는 장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모든 도서관에서 중요시 되어 왔다. 장서는 도서관의 존재 이유이며, 훌륭한 장서는 도서관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다. 장서평가는 과거의 자료수집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고, 현행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장서목적 성취하기 위한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장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유형, 사명, 규모가 고려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자료의 망라적 수집, 보존, 이용이라는 사명

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이용자 요구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서의 특성, 구성, 심도를 평가하여 장점은 유지하고 취약점은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도서관들은 타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주제별 장서 강도와 장서수준에 관심을 가지면서, 주제별 장서에 대한 계량적이고 표준화된 평가기법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컨스펙터스는 미국의 연구도서관그룹(RLG)이 작성한 컨스펙터스로서 주제 분야의 장서수준을 기술하는데 적합하다. RLG 컨스펙터스는 장서평가도구로 널리 사용되었다.

1980년대 북미지역은 물론,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국가,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컨스펙터스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987년 유럽연구도서관협회는 컨스펙터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Conspectus Working Group을 결성하였다. 1990년대에는 IFLA 회의에서 국제적인 컨스펙터스(worldwide conspectus)를 검토하였다. WLN(Western Library Network)은 단위도서관에서 장서 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PC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1999년 WLN과 OCLC Pacific의 병합 이후 최근까지 컨스펙터스 서비스는 OCLC/WLN에 의하여 유지 관리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RLG가 OCLC에 합병됨에 따라 컨스펙터스는 전체적으로 OCLC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

최근 전자자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컨스펙터스의 수정에 관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Johnson(2004)의 모형, Clayton & Gorman(2002)의 모형, Biblaz

(2001)의 모형 등이 있는데, 기존의 장서수준 기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유형별 서비스 수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4.3.2 컨스펙터스의 구성

WLN Manual(Powell 1992: 27)에는 “컨스펙터스란 표준화되어 있는 정의를 이용하여 도서관 장서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조직화된 과정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Wood (1992, 6)는 컨스펙터스를 “도서관장서에 관한 조사결과를 제고하는 다방면 다목적의 장서중심 평가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컨스펙터스는 몇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분류기호(subject classification code), 주제기술어(subject descriptor), 장서수준기호(collection level code), 언어범위기호(language coverage code), 비고(comments)로 구성되어 있다.

1) 주제분류기호

컨스펙터스의 주제분류기호는 각 도서관이 사용하는 분류표의 기호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LCC와 DDC의 계층적 구조를 적용한 컨스펙터스의 주제는 24개의 주류, 500여개의 강목, 5,000여개의 요목이 있다. WLN 컨스펙터스는 LCC와 DDC의 주제표시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2) 주제기술어

컨스펙터스 주제기술어는 분류표의 주제기술어와 거의 일치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주제기술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도록 한다.

3) 장서수준

컨스펙터스는 일반적으로 각 주제별 장서수준을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장서수준기호라는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장서의 능력을 기술한다. RLG 컨스펙터스는 미국 의회도서관, 호주 국립도서관 등 대규모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각 장서수준을 '0'부터 '5'까지의 6개 등간척도로 구성된 기호로 표시하고 있다.

4) 언어범위기호

컨스펙터스에서는 장서의 언어범위 특성에 따라 언어범위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언어범위기호는 장서수준기호와 결합하여 표기되며, 이 표시기호는 장서수준 '3'~ '5'(학습 및 교육지원수준~망라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장서를 다루는 연구도서관에서 주로 이용한다. RLG 컨스펙터스와 WLN 컨스펙터스는 장서에 포함된 자료들의 언어특성에 따라 영어를 중심으로 언어범위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5) 장서기술

표준화된 장서수준기호를 이용하여 장서를 기술하는 경우에는 장서의 특수한 환경이나 예외상황을 표시하거나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컨스펙터스에서는 주제배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장서수준기호만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장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RLG 컨스펙터스에서는 '비고'란을 두어 장서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4.3.3 국가장서를 위한 컨스펙터스 적용

1) 컨스펙터스 수준

장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유형, 규

모,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기법을 선택 적용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포괄적인 연구도서관 수준의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표 4>와 같은 RLG의 6단계 수준의 적용을 제안한다.

2) 컨스펙터스 주제어 체계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OCLC/WLN의 컨스펙터스는 주제에 대해 LC와 DDC 기호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컨스펙터스에서 DDC부분을 KDC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컨스펙터스는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시 추가되는 주제가 발생하면, 새로 기술하여 축적시킴으로써, 데이터베이스로 유지된다.

본 연구는 국가장서를 위한 컨스펙터스를 구성함에 있어, OCLC/WLN의 컨스펙터스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OCLC/WLN에서 정하고 있는 주제는 모두 24개의 카테고리이다. 이 중 사회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경영 및 경제, 교육, 지리 및 지구과학, 법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카테고리에 대하여, 컨스펙터스를

개발하였다. KDC 5판 상관색인에서 주제어를 보완하였고, KDC 번호를 SUBJECT RANGE로 부여하였다. 향후 국제협력이나 서양서의 처리 등을 위하여 DDC번호와 LCC번호를 병기하였다. 개발한 컨스펙터스의 일부 예시는 다음 <표 5>와 같다.

3) 장서수준 결정 방법

컨스펙터스를 활용하여 장서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서가목록분석(shelflist analysis) 방법: 도서관의 서가목록을 분석하여 평가대상 장서의 각 주제별 장서 수, 언어범위, 출판년 등을 조사.
- ② 서지대조(bibliography checking) 방법: 전문적 평가용 서지를 선정/작성하여 평가대상 도서관의 장서목록과 대조하여 소장 자료의 비율을 조사.

WLN Collection Manual에서는 장서수준의 결정에 보조도구로 계량적 지침을 명시하고

<표 4> RLG 컨스펙터스

장서수준기호	내 용
수준 0	- 제외수준. 도서관의 수집범위에서 벗어나 수집하지 않는 자료
수준 1	- 최저수준. 매우 기본적인 자료 이외에는 거의 선택하지 않음
수준 2	- 기초정보수준. 한 주제에 관하여 입문적인 지식과 개요를 제공함
수준 3	- 학습 및 교육지원수준. 한 주제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유지, 보완하는데 적합함 - 전문적 연구를 지원하기에는 낮은 수준 - 독립연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은 물론 공공/ 특수도서관 이용자의 학문적 요구 지원에 적합함
수준 4	- 연구수준. 연구보고서, 새로운 연구결과, 과학적 검증결과, 기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물론 학위논문과 독립연구에 필요한 주요 정보원을 포함함 - 박사과정 및 기타 순수연구를 지원함
수준 5	- 망라적 수준. 한 도서관이 매우 제한된 주제 분야에 대하여 모든 실용 언어로 쓰인 기록지식 즉 모든 주요 자료를 소장하고자 노력함 - 한 주제 분야에 관한 전문 장서를 유지하며 자료를 포괄적으로 소장하는데 목적을 둠

〈표 5〉 국가장서 평가를 위한 컨스펙터스(사회과학분야 일부 예시)

DIVISION	CATEGORY	SUBJECT RANGE(CALL NUMBER)		
		KDC	LCC	DDC
경영 & 경제	통계학	310-310.09	HA0-9999	310-311 313-319
	경제 이론	320.1	HB0-9999	304.6
				307.2
				312
				330-330.8
				332.83
				338.5
				339.5
	경제 역사 & 상황	320.9-320.906	HC0-9999	339-339.2
				330.9
339.3-339.41				
339.43-339.49				
경제- 산업, 토지이용, 노동	323 321.32 321.5	HD0-2320	333.73-333.74	
			333.76-333.77	
			333.9-333.91	
			333-333.6	
			338.9	
			338-338.1	
			658.4	
			658.9	
			658-658.2	
			659.2	
⋮	⋮	⋮	⋮	
⋮	⋮	⋮	⋮	
사회학	범죄학, 형사 사법	364.4 367	HV6001-9999	362.28
				363.2
				363.42
				364-365

있는데, 단행본에 대하여 주류별 장서 수, 주제별 표준서지에 수록된 소장률에 따라 수준을 결정하고 정기간행물에 대하여는 색인지에 수록된 소장정도에 따라 수준을 결정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어 자료 수, 최신성, 수서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수준결정 지침이 있다. RLG에서는 학문분야별로 보충지침을 마련하였다.

4) 언어범위 기호

장서의 언어범위기호는 장서에 포함된 자료의 언어범위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RLG 컨스펙터스에서는 장서의 언어범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호를 부여하고 있다: 영어자료가 우세한 장서(E), 영어자료 이외의 외국어자료가 일부 소장된 장서(F), 여러 언어로 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선택하고 있는 장서(W), 영어 외 1개 외국어 자료로만 구성된 장서(Y).

도서관장서의 언어범위는 해당주제분야 장서의 언어별 출판량과 출판물의 언어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도서관협회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Division은 E, F, W, Y를 규정하고 있다.

언어범위 기호는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도서관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Canadian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는 회원 도서관들의 컨스펙터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체 언어범위기호를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프랑스어(P), 영어/프랑스어(V), 영어와 외국어(S), 프랑스어와 외국어(T), 외국어(X).

국립중앙도서관은 국어 외에, 일본어 한문 중국어 등 동양어(Asian Language), 영어(English), 유럽어(European Language), 기타 언어 등을 간주하여야 될 것이다.

4.4 장서개발정책 성문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의 국가도서관은 대부분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성문화된 정책진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에는 간략한 자료수집 방법과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정책진술서라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성문화된 장서정책은 해당 부서의 업무와 부서간의 관계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것이며, 자료 선정과 수집, 계획, 공중과의 관계, 외부와의 협력 등에 적용하여 일관성 있는 장서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고 담당직원이 바뀌더라도 장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

초를 제공한다. 성문화된 정책에는 서문, 주제별 장서정책, 매체별 장서정책, 특수장서정책, 증장기 개발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4.4.1 서문

서문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장서의 목적이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일치하며 법적 행정적 권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장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장서수집 방법과 범위, 장서의 보존 등을 기술하며, 자료의 폐기와 수집정책의 개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서문에는, ‘도서관법’ 제18조(국립중앙도서관 설치 등) 제2항에 의한 국가대표도서관의 목적과 지위, ‘도서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 온라인자료의 수집)와 및 구입·기증·국제교환 등에 의한 자료수집 방법, 특수장서 정책, 자원공유를 위한 협동연계장서 구축, 폐기 등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서술한다.

4.4.2 주제별 매체별 장서개발정책

주제별 장서 정책에서는 분야별 장서개발의 범위, 장서의 강점, 수집정책, 취약점, 수집제의 자료, 수집원 등을 기술한다. 매체별 장서개발 정책에서는 매체별 장서개발목적, 정의 및 범주, 장서개발방법, 장서접근방법, 타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해 기술한다.

중요한 것은 주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야를 현재의 국

립중앙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 주제 분야별 장서개발정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매체별로는 문제점이 많은 부문부터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며, 온라인 자료, 회색문헌 중 정부간행물 등이 매체별 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된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설립되는 경우 분관의 주제는 각 분관이 담당하여 장서개발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4.3 전자자원 개발정책

국외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보면, 이미 전자자원에 대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5가지의 supplementary guideline(도서자켓, 전자정보원, 마이크로자료, 비도서관자료, 웹아카이빙) 중 '전자정보원'에서 디지털자료의 정의 및 수집범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체적인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국립도서관도 'Web Collection'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과 수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도서관은 특히 'Australian Electronic Resources'와 'Overseas Electronic Resources'로 구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납본을 통해 수집하고, 고전 또는 문화원형 자료 등과 같은 국가기록유산을 수집하며,

우리나라 언어로 쓰인 자료와 국외에서 출판된 우리나라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장서를 구축해 나가야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국립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조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하이브리드장서 구축, 협동연계장서 구축, 장서 평가, 그리고 장서개발 정책 성문화 등 네 가지 서브모형으로 구성된 기본모형을 도출하였다.

하이브리드장서는 도서관이 물리적으로 소장하는 오프라인 자료는 물론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통합적으로 수집한다. 다양한 회색문헌과,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자료, 한국관련 국외자료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납본 등의 수집방법 외에 관련기관 간 상호협동을 통한 연계장서 모형을 제안하였다. 우수한 장서수립에 필수적인 장서평가를 위하여 포괄적 장서에 적합하며 세계적 표준 방법으로 확립된 컨스펙터스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를 제안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광복 이후 60여 년에 걸쳐 장서개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오늘날의 장서를 구축하였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개관 등 국제적 위상은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직 선진 외국에 비교하면 장서는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지식과 업무 절차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세부적인 장서수집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국가장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제도 안에서 장서개발 모형

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일찍이 서지통정이 확립된 선진국과 다르며 법적, 제도적 변경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한 국가장서의 구축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투입을 필요로 한다. 협동연계장서 구축의 대상이 될 회색문헌, 장애인용 대체자료, 한국관련 국외소재 자료의 수집을 위한 역할분담과 표준화 그리고 종합서지 DB의 구축 또한 인력의 투입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자료의 수집은 이제 시작하는 초보적 상태에 있으며, 이해 당사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와 협의는 도서관의 업무 부하를 가중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가도서관 장서개발 기본모형의 각 서브모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 및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하이브리드장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출판물의 완전한 납본과 수집을 위한 국내출판물 상시 모니터링 체

계를 구현할 것을 제안한다. 회색문헌, 장애인용 대체자료, 국외 한국관련 자료 등의 협동연계장서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수집범위, 역할, 중장기 세부계획을 확립하고 협의체를 결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장서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장서평가는 발전적 장서개발의 선행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과학 분야 컨스펙터스를 전 분야에 걸쳐 확대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평가 작업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장서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제별, 유형별 장서개발정책의 성문화는, 현재 사용하는 방법과 절차를 기반으로 국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침이 될 상세한 내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현재 장서 중 취약한 주제분야, 수집범위와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 새로운 정보원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승진 외. 2008. 『디지털자료 납본체계 및 이용보상금에 관한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2]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2008.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기준 및 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 [3] 김유승. 2007. 웹 아카이빙의 법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찰: 웹 정보자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3): 5-24.
- [4] 남영준. 2002. 디지털 시대의 회색문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4): 233-255.
- [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09-2013』. [서울]: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6] 박진희. 1997. 『컨스펙투스 방법을 이용한 장서 평가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7]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국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9-399.
- [8] 신은자. 1999. 전자 회색문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6(3): 83-98.
- [9] 윤희윤. 2001. 국가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수집 및 보존방안. 『도서관』, 56(3): 3-48.
- [10] 윤희윤. 2003. 한국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11] 윤희윤. 2008.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 지원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12] 장덕현. 2009. 전자자원 선정을 위한 컨스펙투스 수정 모형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2): 31-44.
- [13] 조혜경. 2007. 『일제강점기 해외소재 한국관련 기록의 통합활용에 관한 연구: 컬렉션 기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14] 홍현진, 노영희. 2008. 정책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95-125.
- [15] Biblaz, D. 2001. *Guidelines for a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using the conspectus model*. Hagu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Section on Acquisition and Collection Development.
- [16] British Library. 1996. *Proposal for the Legal Deposit of Non-print Publications to the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from the British Library*. London: British Library.
- [17] British Library. 2002. *Extension of Legal Deposit to Non-print Materials*.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bl.uk/news/webcase.html>>.
- [18] Calang, M., Tabata K., & Sugimoto S. 2002. "Linking collection management policy to metadata for preservatio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ublin Core and Metatdata for e-Communication*, 35-43.
- [19] Carroll, B., & Cotter, G. 1993. "A New Generation of Grey Literature: The Impact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ies."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5-17.
- [20] Cassell, Kay Ann. 2004. "Report on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Collection Building*, 24(2): 70.
- [21] Chillag, J. P. 1985. "Grey Literature: Its Supply and Bibliographic Access at the BLLD."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Catalogue and Index*, 78/79: 6-8.
- [22] Clayton, P., & Gorman, G. E. 2002. "Updating Conspectus for a Digital Ag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6: 253-258.
- [23] Committee on an Information Technology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 2000. *LC 21: a Digital Strategy for the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 Press.
- [24]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ies, Working Group. 1997. *The Legal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Paris: Unesco.
- [25] Conference of European National Librarians,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CENL/FEP). 2002.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Codes of Practice for the Voluntary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online]. [cited 2002.6.1].
 <<http://www.bl.uk/gabriel/projects/pages/code-of-practice.html>>.
- [26] Dominic, J. et al. 2005. "Access to Grey Content: An Analysis of Grey Literature Based on Citation and Survey Data, A Follow-up Study." *Proceeding of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27] Dupont, Henrik. 1999. "Legal Deposit in Denmark: the New Law and Electronic Product." *LIBER Quarterly, the Journal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 9(2). [online]. [cited 2002. 1.20]. <<http://www.kb.nl/infolev/liber/articles/dupontll.htm>>.
- [28] Evans, G., Eeward., Saponaro, & Margret, Zarnosky. 2005. *Developing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Collections*. 5th ed.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29] Ferguson, A. W., Grant, J., & Rustein, J. S. 1988. "The RLG Conspectus: It's Uses and Benefit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9(2): 197-206.
- [30] Gatenby, Pam. 2002. "Legal Deposit, Electronic Publications and Digital Archiving: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s Experience." *68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Glasgow, August: 18-24*. [online]. [cited 2002.12.13].
- [31] Hakala, Juha. 1999. "Electronic Publications as Legal Deposit Copies." *Tietolinja News* [online]. 1/1999: [cited 2001.11.21].
- [32] IFLA. Committee on Copyright and Other Legal Matter(CLM). 2000. *The IFLA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online]. [cited 2002. 12. 13].
- [33] IFLA and IPA. 2002. *Preserving the Memory of the World in Perpetuity: a Joint Statement on the Archiving and Preserving of Digital Information*. [online]. [cited 2002.12.13].
 <<http://www.ifla.org/V/press/ifla-ipa02.htm>>.
- [34] IFLA Headquarters. 2005. *Libraries for the Blind in the Information Age-Guidelines for Development*. Hague: IFLA Headquarters.
- [35] Jasion, Jan T. 1991.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Aldershot: Ashgate.
- [36] Johnson, P. 2004. *Fundamentals of Collection Development & Management*, Chicago: ALA.
- [37] Joint, Nicholas. 2006. "Legal Deposit and Collection Development in a Digital World." *Library Review*, 55(8): 468-473.

- [38] Owen, J., Mackenzie, S., & Walle, J. V. D. 1996. *Deposit Collections of Electronic Publication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39] Wood, D. 1982. "Grey Literature-The Role of the British Library Lending Division." *Aslib Proceeding*, 34(11/12): 359-46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Seung-Jin Kwak et al. 2008. *Digitaljaryo Napbonchegye mit Yiyongbosanggumae gwanhan Yeongu*.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2] The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2008. *Doseogwan Jangaeinservice Gijun mit Jichim*. Seoul: The National Library Support Center for the Disabled.
- [3] You-Seung Kim. 2007. "A Study of Legal Issues for Web Archiv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3): 5-24.
- [4] Yoong-Joon Nam. 2002.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Grey Literature in Digital Ag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19(4): 233-255.
- [5]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Library & Information Policy. 2008. *Doeseogwanbaljeonjongha pgehoek: 2009-2013*.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Library & Information Policy.
- [6] Jin-Hee Park. 1997. *A Study of Collection Evaluation Using Conspectus Methodology*. Ph.D. diss., Yonsei University.
- [7] Hye-Rhan Seo. 2003.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20(1): 379-399.
- [8] Eun-Ja Shin. 1999. "A Study on the Use of Electronic Grey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Management*, 16(3): 83-98.
- [9] Hee-Yoon Yoon. 2001. "Archiving Strategies of Electronic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Doseogwan*, 56(3): 3-48.
- [10] Hee-Yoon Yoon. 2003. "A study on the Reform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3-52.
- [11] Hee-Yoon Yoon. 2008. *Jangaeinyong Daechejaryo Gaebal Jiwonbangan Yeongu*.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12] Duk-Hyun Chang. 2009. "A Study on a Revised Conspectus Model for the Assessment of Electronic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2): 31-44.

- [13] Hye-Kyoung Jo. 2007. *A Study for Integrated Use of Overseas Record on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Focus on Collection and Description*. M.A. thesis, Myoungji University.
- [14] Hyun-Jin Hong, & Young-Hee Noh. 2008. "A Study on Modeling a Unified Policy Information Service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95-125.